

석사학위논문

무용 창작 「 i 」에 대한 연구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김 나 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창작 「 i 」에 대한 연구

Analysis on the Work of the 「 i 」

202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김 나 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창작 「 i 」에 대한 연구

Analysis on the Work of the 「 i 」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김 나 연

김나연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남 용 (인)

심 사 위 원 박 재 홍 (인)

심 사 위 원 정 석 순 (인)

국 문 초 록

「 i 」 작품에 대한 분석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김 나 연

본 논문은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MZ 세대의 진로 고민을 주제로 다룬 작품으로 획일화된 안정적인 삶과 불확실한 이상적인 삶, 두 갈래에 놓인 MZ 세대를 다룬 현대무용 작품 표현 방법 연구와 분석이다.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으로 구성된 MZ 세대는 사회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Z 세대는 과거의 세대와는 달리 개인 중심과 현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삶의 방식, 자신이 만족하는 삶 등 자신이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진로에 대한 확신 없이 현재와 미래를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힘들다. 이로 인해 MZ 세대는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회적 가치관 속에 갇혀 자신에게 있어 우선 사항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기 어려워하며 MZ 세대는 현실과 이상에서의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

현재 사회에는 MZ 세대만이 아닌 다양한 세대들이 공존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가족과 국가를 위해 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민, 1960년대에 태어난 386세대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한다.

1970~1980년대 X세대는 자신의 자유와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사회 비판에서의 고민, 1981~1996년 밀레니엄 세대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사회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한다. Z세대는 세대를 가르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 인구통계학자들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Z세대라고 한다.

이렇듯 모든 세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하는 고민이 다르다. 본 연구자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MZ 세대의 고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MZ 세대를 살아가는 본 연구자를 작품에 투영시켜 표현하였다.

총 네 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두 갈래 길에 놓인 MZ 세대의 고민을 분석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MZ 세대의 고민을 전달하기 위해 [MZ 세대 = 본 연구자], [MZ 세대 속 타인 = 무용수], [옷 = 이상적인 삶], [의자 = 안정적인 삶], 이 네 가지의 설정을 정해 현대무용 작품 「 i 」을 제작하였다.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본 연구자를 제외한 무용수, 의상과 의자를 소품으로 사용하여 작품의 흐름을 완성 시키고자 하였다. 먼저, 의자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삶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 공간 분리, 의자와 무용수와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의자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확장된 공간에서의 움직임 표현하기 위해 의상을 활용하여 이상적인 삶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무대 공간 구성, 움직임, 작품에서 주제를 은유하는 소품의 의미를 나누어 작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현재 MZ 세대의 고민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소품, 움직임 이미지, 움직임 방법을 연구하고 표현하여, 현대무용 창작 작품 「 i 」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주요어】 세대, MZ 세대, 현실, 이상, 고민, 진로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2.1 세대	3
2.1.1 세대의 정의	3
2.1.2 MZ 세대 정의	4
2.1.3 MZ 세대와 이전 세대와의 차이점	5
2.2 진로	6
2.2.1 진로 정의	6
2.2.2 진로 만족	7
2.3 이상과 현실	8
2.3.1 동양의 이상 이론	8
2.3.2 서양의 이상 이론	9
III. 작품 개요	11
3.1 작품의 형식 및 구조	11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 매체	12
3.2.1 움직임 표현 방법	12
3.2.2 의상	14
3.2.3 조명	17
3.2.4 음악	19
3.2.5 소품	21
IV. 작품 분석	23
4.1 1장	25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25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5
4.1.3 음악	27
4.1.4 무대장치 및 조명	28

4.2 1.5장	29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29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9
4.2.3 음악	30
4.2.4 무대장치 및 조명	31
4.3 2장	32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32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2
4.3.3 음악	33
4.3.4 무대장치 및 조명	34
4.4 3장	35
4.4.1 내용 및 안무 의도	35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5
4.4.3 음악	37
4.4.4 무대장치 및 조명	38
4.5 4장	39
4.5.1 내용 및 안무 의도	39
4.5.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9
4.5.3 음악	41
4.5.4 무대장치 및 조명	42
 V. 결 론	 43
 참 고 문 헌	 45
 부 록	 47
 ABSTRACT	 50

표 목 차

[표 3-1] 장면의 특성	11
[표 3-2] 움직임 표현 방법	13
[표 3-3] 색의 연상과 무대의상의 상징적 표현	16

사 진 목 차

[사진 3-1] 여자 무용수1 의상	14
[사진 3-2] 여자 무용수2 의상	14
[사진 3-3] 남자 무용수3 의상	15
[사진 3-4] 남자 무용수4 의상	15
[사진 3-5] 남자 무용수5 의상	15
[사진 3-6] 소품 의자 1	21
[사진 3-7] 소품 의자 2	21
[사진 4-1] 1장 (평범한 일상 속 개개인의 모습)	25
[사진 4-2] 1장 (어느 순간 한 곳에서 만난 사람들)	26
[사진 4-3] 1장 (같은 고민을 바라보는 사람들)	26
[사진 4-4] 1.5장 (안정적인 삶 속에서의 고민)	29
[사진 4-5] 1.5장 (고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29
[사진 4-6] 2장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들과의 관계)	32
[사진 4-7] 2장 (고민을 해결한 사람과 바라보는 사람)	32
[사진 4-8] 3장 (고민에서 벗어나고자 시도)	35
[사진 4-9] 3장 (의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 형성)	35
[사진 4-10] 3장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36
[사진 4-11] 3장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36
[사진 4-12] 4장 (고민을 해결했지만, 또 다른 고민)	39
[사진 4-13] 4장 (고민을 해결했지만, 또 다른 고민)	39
[사진 4-14] 4장 (고민의 선택은 같은 공간에서 머무름)	40
[사진 4-15] 4장 (고민의 선택은 같은 공간에서 머무름)	40

그 립 목 차

[그림 4-1] 플로어 패턴	26
[그림 4-2] 플로어 패턴	27
[그림 4-3] 플로어 패턴	27
[그림 4-4] 조명 플랜	28
[그림 4-5] 플로어 패턴	30
[그림 4-6] 조명 플랜	31
[그림 4-7] 플로어 패턴	33
[그림 4-8] 조명 플랜	34
[그림 4-9] 플로어 패턴	37
[그림 4-10] 플로어 패턴	37
[그림 4-11] 플로어 패턴	37
[그림 4-12] 조명 플랜	38
[그림 4-13] 플로어 패턴	41
[그림 4-14] 플로어 패턴	41
[그림 4-15] 플로어 패턴	41
[그림 4-16] 조명 플랜	42

I. 서론

본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안정적인 삶과 이상적인 삶 중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MZ 세대를 특정하여 표현 방법을 찾아 창작된 현대무용 작품 「i」이다.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 현시대에 주축인 MZ 세대는 지속적인 사회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진로와 직업에 대한 폭이 넓어짐으로 현실과 이상적인 삶에서 초점을 맞추지 못해 우선 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MZ 세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행복, 웰빙 등에 관심이 많아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서 물질적, 양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성장이 더 이상 삶의 질의 개선이나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각종 보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¹⁾

현시대를 살아가는 MZ 세대 이전에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 386세대(1960-1969), X세대(1970-1980), 밀레니엄 세대(1981-1996), Z세대(1997-2012) 순으로 세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시대별로 대표적인 고민들이 존재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6·25전쟁 후 출생해 가족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지만 가족과 어울리지 못하는 비운의 세대이다. 386세대는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세대를 말한다. X세대는 주위에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 파였고,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한 세대이다.

밀레니엄 세대는 IT 기술에 능통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은 세대이다. 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를 뒤잇는 세대이다.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원주민’, 2000년 초반

1) 김윤중. (2017). 세대별 일자리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p.12

정보기술(IT) 붐과 함께 유년 시절부터 인터넷 등의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베이비붐 세대를 시작으로 여러 세대가 분리되고, 그 세대를 부르는 명칭이 존재한다.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 당연했던 모습과 집단을 이루어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집단주의 문화를 지나, 개인주의 문화가 익숙하고 주의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가 등장한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문화로 각 세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MZ 세대가 가진 고민을 주제 만들어진 현대무용 작품 「 i 」은 현대무용의 움직임에 의하여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MZ 세대를 살아가는 연구자의 시각, 의도와 정서가 담겨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구체적인 서술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연구자는 작품 「 i 」에 안무자이자 무용수로서 출연하여, 참여자의 시각은 반영하였지만, 관객의 시각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작품 「 i 」을 통해 관객과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소통이 되었다면 이 연구에 대한 기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세대

2.1.1 세대의 정의

세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동일한 연령집단이 속하는 개인들은 다수의 사회적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 있어서도 비슷한 주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서 간주될 공통 특성을 가지고 있다.²⁾

어떤 사회 내에서 다소간 동일한 연령에 있는 개인들의 모임인데, 이 개념은 사회 계급 개념과 같이 유사한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서 작용하는 영향력을 분석하게 한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연령은 과정의 사회적 측면을 밝히려는 것이다. 젊은이와 노인은 과거와 현재를 다르게 보며, 사회적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갈등이 쉽게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는 사회변동의 하나의 근원을 형성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변동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이나 개혁가들은 젊은 세대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같은 사회적 현실을 경험하더라도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세대 단위’라고 부른 것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 내의 갈등뿐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또한 가능하다.³⁾

2) 김기연. (2002).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에 따른 생활행동.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p.19

3) 고영복. (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1.2 MZ세대의 정의

MZ 세대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⁴⁾

MZ 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렌탈이나 중고 시장 이용)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특징을 보이며,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아웃’ 소비를 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세대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아 ‘플렉스’ 문화와 명품 소비가 어느 세대보다 익숙하다는 특징도 있다.⁵⁾

2020년까지 통계를 보면 MZ 세대는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한다. 그러나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2040년에는 50%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Z세대(1996~2010년 사이에 출생한 7800만 명)가 오는 2034년 미 역사상 가장 수가 많은 세대로 등극한다고 분석했다. 대출, 소비 등 금융업 전반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⁶⁾

MZ 세대들은 자아 일치성과 사회 가치를 중요시하는 개인 특성과 함께,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모습⁷⁾을 통해 이들은 다른 세대들과 구분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자유로운 세대이다.⁸⁾

4)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5)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6) 한국경제신문.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경닷컴

7) 김수정, 박해란, 최섯별. (2020). 소비자시민성의 개념화 및 척도개발. 소비자학연구. 31(1), p.279-299.

8) 김미예, 옥경영. (2021). MZ세대의 소비자책임인식, 소비자교육이 지속가능소비에 미치는 영향 : 기업책임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7. no.3 : p.63-82.

2.1.3 MZ 세대와 이전 세대와의 차이점

세대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MZ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다른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세대는 4가지 유형의 세대로 많이 분류된다.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 65년부터 80년까지 X세대, 지금의 20-30대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포스트 밀레니엄 세대인 Z세대가 있다.

수 많은 세대들과 MZ 세대를 비교해 보면, 과거 베이비붐세대나 X세대는 조직 중심과 미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세대가 1등, 금메달, 대기업, 결과, 안정적인 삶,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등 사회적 기준(키워드) 중심이었다면, 반면에 MZ 세대는 과거의 세대와는 달리 개인 중심과 현재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노력, 소소한 성공, 행복, 과정, 다양한 삶의 방식,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 등 자신이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된다.⁹⁾

전체적으로 MZ 세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고, 미래를 가꾸어가는 방식은 이전 세대가 해온 방법에 기대거나 기성세대나 학교가 가르쳐준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다고 설명된다.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하며 쌓은 문화적 감수성과 자부심, 저출산으로 인한 1인 자녀 가구 환경에서 성장한 지금의 MZ 세대는 과거 X세대나 베이비붐세대보다 훨씬 더 온전한 나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되는데, 이들은 남들이 볼 때 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것이라며 떳떳하게 밝히는 ‘나’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할 수 있는 단단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세대라고 할 수 있다.¹⁰⁾

9) 이수지. (2020). 마케팅을 위한 세대 탐험. KAA저널. p.2.

10) 대학내일02연구소. (2018).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2019. 위즈덤하우스

2.2 진로

2.2.1 진로의 정의

진로란, 개인의 생애 직업발달과 그 과정 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과거에는 한 직업을 평생 고수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진로를 직업과 동일어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다수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남에 따라 진로와 직업의 구별이 필요해졌고¹¹⁾, 개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인식하고 결정해야 한다.

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환의 시기를 마주한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거쳐 대학에 입학한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생이다. 급속한 경제개방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야기되면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뿐 아니라 직업 가치관도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대학입시의 교육으로 인해 대학 입학 이후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¹²⁾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주도적인 생활방식이나 자신의 적성, 흥미에 맞는 전공이나 진로 선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기회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의 진로 계획이나 취업 준비하는데 어려움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근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취업 문제까지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의 기회가 적어지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 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진로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 흥미에 무관한, 단지 안정적인 직장만을 찾거나 직종이나 업종에 대한 지식 없이 취업을 한다. 적성과 전공 불일치로 인해 업무에 대한 흥미와 능력의 결여를 단기 이직이나 조기 퇴사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문제¹³⁾가 이슈화되고 있다.

1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2) 이숙정, (2013).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진로 미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6(1), p.119-139.

2.2.2 진로 만족

진로, 즉 직업은 경제적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요건이며, 개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직업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건이다.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진로를 먼저 정하게 된다. 과거에는 직업과 진로를 동일어로 취급했지만, 현재에는 새로운 직업이 다양해지며 진로와 직업의 구별이 필요해졌다.

즉, 진로 만족은 직업, 진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주관적인 만족 상태를 말한다. 이 만족도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없지만, 연구자에 따라 만족도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mith(1955)¹⁴⁾는 직업 만족이란 각 개인이 자신의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좋고 나쁨의 모든 감정의 총체 또는 이러한 감정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되는 일련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Locke(1976)¹⁵⁾는 직업 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업 활동 또는 직업 활동 경험을 평가한 결과에서 발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McCormick & Tiffin(1974)¹⁶⁾는 직업 만족이란 욕구 및 가치 등과 관련이 있고 이는 조직 구성원이 직업 활동을 통해서 취하는 특징 태도임과 동시에 직업 활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연구자들에 정의를 정의해 보면 직업 만족은 자신의 전반적인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가지는 태도와 감정적 반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진로 선택은 앞으로의 경제적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세대는 1등, 본인이 만족하는 결과가 아닌 타인이 만족하는 결과, 그로 인해 자신의 주도적인 생활방식이나 적

13) 서병우. (2011).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만족도의 이론연구. 취업진로연구. 1(2). p.69-90.

14) Smith, H. C. (1955). Psychology of Industrial Behavior. New York: McGraw Hill

15) Locke, E. A. (1976). Job Satisfaction, In Dunnette, M. D.(Ed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6) McCormick, E. J. & Tiffin, J. (1974). Industrial psychology(6thed). London: George Allen & Unwin.

성, 흥미에 맞는 전공 혹은 진로 선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또한, 자신의 진로 계획을 준비하는데 어려움과 초조함을 느껴 자신이 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 확신이 없고 하는 일마저 의심하기 시작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 중심, 현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과거 속에 갇혀 자신이 만족하는 삶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선택과 미래에 대한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든 옳고 그름은 당장 모른다. 경험을 통해 모든 감정들이 균형 상태를 만들어 개인이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감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3 이상과 현실

모든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적응하려 애쓴다. 그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마음 한 공간에 자신만의 이상향을 품고 있다.

이상향을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으로 서양에서 유토피아라고 정의한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상, 누군가의 이상향, 이상적인 삶이라고 부른다. 이렇듯 이상이라는 단어는 꿈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이상 세계는 현재의 아픔을 벗어나 미래를 위한 간절한 소망이자 바람일 수 있다.

2.3.1 동양의 이상 이론

이상향은 현실적인 삶으로 힘든 사람들이 고민과 근심을 내려놓고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동양의 이상 세계는 사전적 의미로 현실에서 불만이 없는 완전한 세계를 말한다. 동양에서 말하는 이상 세계 또는 이상향은 무릉도원을 떠올리게 한다.¹⁷⁾

17) 정재서, (2000).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비추는 아나모르포., 푸른 숲, p.252.

동양의 이상향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이 이상향이라는 개념을 갖는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풍경이 뛰어난 동네의 입구나 큰 바위에 ‘동천(洞天)’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천(洞天)’은 신선들이 모여 사는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하고 신성한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다. 자신이 사는 마을을 ‘동천(洞天)’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행복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상향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¹⁸⁾

동양에서의 이상향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양에서의 이상향은 불교, 유교 등의 철학 및 종교 기반으로 형성된다. 각 분야의 사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이상향의 모습에 투영되는데 특정 유형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여러 명칭 중에 무릉도원은 인위적인 권력체계가 없는 마을 공동체적 이상향이다.¹⁹⁾

전해지는 이야기로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시대는 다르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각자 짊어지고 있는 고민의 무게와 형태는 다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이 힘들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 대부분은 힘겨운 삶에 위로받고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없는 안식처, 즉 이상향을 꿈꾼다.²⁰⁾

2.3.2 서양의 이상 이론

16세기 초,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가 처음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어 낸 이래,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말은 그 어원 자체

18) 서신혜. (2010). 조선인의 유토피아-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꿈꾼세계. 문학동네. p.54.

19) 서신혜. (2010). 조선인의 유토피아-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꿈꾼세계. 문학동네. p.52.

20) 이진주. (2016). 일상경험을 통한 동양적 이상향의 표현연구. 국내석사학원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울. p.7.

가 어원상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 때문인지 부정적인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부정적이라고 할 때 이는 곧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을 가리키며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긍정적이라고 할 때 이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꿈이 실현되는,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제거되어 욕망과 그 성취 사이에 그 어떤 긴장과 대립도 존재하지 않고 ‘이상적인 곳’을 가리킨다.²¹⁾

이렇듯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기 위해 자신만의 이상향을 만들고, 그 이상향을 꿈꾸며 살아간다. 그 섬에서 가장 넓은 중심부의 직경은 약 2백마일 정도이다. 섬의 양쪽 끝 방향 외에는 거의 비슷한 폭이지만 양쪽 끝으로 갈수록 둥글게 곡선을 그리며 점점 좁아져 둘레가 5백마일 정도 되는 둥그런 고형을 킴퍼스를 이용해 그려 놓은 것도 같다. 따라서 그 섬은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고, 양 끝단의 사이로 대략 11마일 넓이의 해협이 육지와 분리시키고 있다. …… 오직 유토피아인들만이 안전한 뱃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지 안내인 없이 외국배가 항구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바닷가에 세워놓은 일정한 표식이 없다면, 항구로 진입하는 일은 그곳 주민들에게도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 표식들을 약간 이동시키는 것만으로 아무리 많은 적군의 전함이라도 유인하여 격파시킬 수 있다. ²²⁾

위의 글을 보면 지형적인 조건과 사람이 살기 위한 조건은 최상이다.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간의 허영심, 과시욕, 가짜, 욕망, 금욕주의, 헛된 쾌락 등 전혀 의미가 없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행복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충족된 삶의 방향성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속이거나 희생시키지 않고, 개인이 아닌 모두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행위들은 인간의 본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위이다. 진정한 정신적 쾌락을 느끼며 인간 본연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활력을 얻는다.²³⁾

이렇듯 서양에서 유토피아는 불안정한 현실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리적 요인이 토대로 이루고 있다.

21) 임철규. (1994). 왜 유토피아인가 : 유토피아, 문학, 이데올로기에 관한 비평. 민음사. p.11.

22) Thomas More. 저, 권혁 옮김. (2011). 유토피아. 돌출새김. p.105-106.

23) 홍사현. (2016). 사유공간으로서 ‘이상향(理想郷)’의 상징적 표현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p.14.

Ⅲ. 작품 개요

3.1 작품형식 및 구조

본 연구자의 작품 「 i 」는 불확실한 미래 속 안정적인 삶과 이상적인 삶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MZ 세대를 특정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으며, 움직임과 여러 표현 방법을 구상하였다. 총 4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작품 구성할 때 장면마다 조명의 사용, 음악, 소품의 사용을 중심으로 장면 전환을 하였다. 작품의 장면 특성을 <표 3-1>로 설명했다.

[표 3-1] 장면의 특성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음악	시간
1장	다른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MZ 세대 (무용수 = 같은 세대의 인물)	각자 다른 동선, 의자를 향한 시선으로 의자와 무용수들과의 관계 형성.	기계음	3분
1.5 장	안정적인 공간에서의 고민 (의자=안정적인 삶)	의자가 놓인 공간에서 무용수들의 시선으로 시작, 공간에서의 움직임 확장.	무음	4분

2장	같은 고민을 대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 (옷=이상적인 삶)	의자가 놓인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가기 위한 개개인의 움직임. 무용수들의 의상인 옷을 이용해 의자가 놓인 공간에 서 벗어난 무용수와 남아있는 무용수와의 관계 형성.	Chopin: Nocturne No.2 In E Flat Major Op.9-2(쇼팽: 야상곡 2번 내림 마장조 작품번호 9-2)	4분
3장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고민을 대하는 사람들 속 여러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바디 컨택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장면.	Debussy: Suite bergamasque, L75-3. Clair de lune	5분
4장	고민에 대한 위로	상수- 의자의 모양을 단순하게 변형시키는 움직임. 하수- 의자를 이미지화한 무용수 움직임.	Bruno Major- Places We Won't Walk	4분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3.2.1 움직임 표현 방법

현대무용 창작 작품 「 i 」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소품을 이용한 움직임, 무용수 솔로 움직임과 바디 컨택 (body contact)으로 이루어진 작

품이다.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연구자를 제외한 무용수 4명을 출연시켜 타인, 개인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다. 또한 의자를 이용해 공간 분리, 의자의 형태, 위치를 변형시키며 의자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의자를 이용한 움직임에 집중했다.

먼저, 의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편안함을 주는 이미지를 띄고 있다. 이러한 의자에 이미지는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안정적인 삶을 표현하고자 사용하였다. 의자가 놓인 공간은 하수에 고정, 공간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삶을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상수로 이동하며, 무용수들의 의상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구성하였다.

의상을 활용한 움직임은 안정적인 삶에서의 탈피, 이상적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의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묘사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구성하였다.

의자를 이용한 높낮이, 행위를 통한 움직임의 발전, 의자를 이용한 무용수와의 바디 컨택 (body contact), 의자라는 공간을 벗어남으로써 옷을 이용한 바디 컨택 (body contact), 무용수와 무용수의 바디 컨택 (body contact)을 연구하였고, 마지막 장에서의 움직임은 의자라는 이미지를 잡아 서로의 의자가 되어주면서 작품은 끝이 난다.

[표 3-2] 움직임 표현 방법

동기	탐구	기대효과
방향	높낮이를 이용한 방향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움직임 높낮이 차이와 의자를 이용한 이동, 움직임 속 무용수들과의 관계성을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행위	의자와 옷을 이용한 행위	의자를 이용한 행위, 옷을 이용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 관객에게 의자와 옷에 대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	각 무용수	작품을 이끌어가는 무용수와 다른 무용수들이 만나 개개인의 역할을 주며, 각기 다른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무대	상, 하수	상수: 의자가 놓인 공간, 안정적인, 획일화된 삶 하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삶, 이상적인 삶 무대공간을 분리 시키고자 한다.

3.2.2 의상



[사진 3-1] 여자 무용수1 의상



[사진 3-2] 여자 무용수2 의상



[사진 3-3] 남자 무용수3 의상



[사진 3-4] 남자 무용수4 의상



[사진 3-5] 남자 무용수5 의상

작품에 의상 선정 기준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초년생으로 세미 정장으로 정하였다. 의상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미색 바탕에 추가적인 색감을 더해 개인에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사진 1]의 무용수는 갈색 의상을 착용하였고, 대중적이고 평범한 캐릭터를 만들었고, [사진 2]의 무용수는 미색 바탕에 청색을 더한 색감에 의상을 착용해 고요한 분위기와 억제된 행동을 보여주며 냉정한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었다.

[사진 3]의 무용수는 미색 바탕에 녹색을 더한 색감에 의상을 착용해 차분하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사진 4]의 무용수는 청색과 회색이 더해진 남색 의상을 착용하여 냉정하고, 조용한 캐릭터를 만들었다. [사진 5]의 무용수는 미색 바탕에 갈색을 더한 색감에 의상을 착용해 차분하고 성실한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5명의 무용수들에게 다른 색감의 의상을 입혀, 개개인의 캐릭터를 만들어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3-3] 색의 연상과 무대의상의 상징적 표현²⁴⁾

분류	색의 연상과 의미	무대의상의 상징적 표현
 적색	태양, 피, 정열, 사랑	생명, 열정적인 사랑 표현, 감정적인 사랑
 갈색	가을, 풍요, 평온, 세속적	일반 대중적인 사람, 평범하고 친근한 느낌 표현
 황색	금, 빛, 교만, 질투	성격이 불안정한 사람, 배신자, 반역자, 의심 많은 사람
 미색	성실, 인내, 평온, 안정	차분한 사람, 성실함을 표현, 안정적인 분위기
 녹색	초원, 평화, 청춘, 안전	농부, 정원사, 하인의상

24) Marian L. Davis,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 역. (1990). 복식의 시각디자인. 서울. 경춘사. 연구자 재구성

	자색	고귀, 우아, 장엄	왕, 귀족, 고위성직자, 고독한 분위기, 신비적 분위기
	청색	바다, 신비, 침착, 고요	냉정하고 고독한 사람, 고상하고 억제된 행동표현
	백색	탄생, 순결, 진실, 고독	천사, 성직자 의상, 혼례복, 상복,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 표현
	회색	재, 겸손, 우둔, 무기력	피동적인 사람, 노인을 상징, 조용하고 우울한 분위기 효과
	검정	어두움, 죽음, 엄격, 공포	예복, 상복, 쓸쓸한 사람, 엄숙하고 심원한 느낌 표현

3.2.3 조명

조명은 단순히 빛을 제공해 주는 광향의 차원이 아닌, 다양한 색조, 색감, 색질을 광질, 광량, 광폭을 결합시키므로, 그 기능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색을 부여하는 것만이 아니다. 색을 보다 부드럽게 운화 시키고 선명하게 만들어주며, 광의 질량과 명암을 통해 거리감을 극대화하고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를 암시해 주기도 한다. 그 밖에도 조명은 자연의 물상을 사실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조형함으로써 특정의 분위기가 정서, 상황 등을 조석하고 표현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예술이라는 독특한 분위기 속에 몰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²⁵⁾

조명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다면 무대 위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예술적, 미적인 면을 극대화할 수 있고, 조명을 통하여 무용수들의 움직임, 표정만으로 표현하기 힘든 분위기를 연출시킬 수 있다. 이처럼 조명은 무용 공연

25) 이금화. (2000). 무용공연에서의 조명의 효과 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에 있어 조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 「 i 」은 총 4장으로,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화려하지 않은 백색 계열, 은은한 노란빛 계열 조명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조명으로 진행하였다.

1장에서 첫 장면은 기계음과 무음에 반복으로, 소리에 맞추어 움직이고, 멈추고를 반복하며 무용수들은 무대 위를 걸어 다닌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 다니는 모습을 백색의 조명을 사용하여 장면을 연출했다.

의자가 놓여진 공간으로 무용수들이 이동하여 의자가 있는 공간에서의 무용수 움직임, 그 안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앞 광을 이용한 탑 조명을 사용하였다.

2장에서는 의자라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장면으로 의자에 남아있는 무용수와 공간에서 벗어난 무용수들의 상대적인 느낌을 보여주고자 했다. 무대 위 분위기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으로 연출하며, 무용수들의 관계성을 하나의 사회 속, 개개인으로 보여주고자 옐로우 빛 조명 컬러를 사용하여 장면을 연출하였다.

3장에서는 의자라는 공간에 남아있던 무용수가 다른 공간에 위치한 무용수에게 다가가 접촉을 시도하며 장면이 전환된다. 여자 무용수 1이 남자 무용수 4에 옷을 잡으면 어둡게 전환되고, 전체적인 분위기 톤을 2장과 상반되게 조명을 사용하였다.

이 장면은 MZ 세대의 개인주의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여자 무용수 1이 거부를 당하고 남자 무용수 4에게 밀쳐져 기대고 있으면 전체 화이트 조명으로 바뀐다. 여자 무용수 1은 다른 사람들과의 바디 컨택 (body contact)으로 변화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은 2장에서의 움직임보다 확장된 장면이다. 또한 한 공간에 고정적으로 놓여있는 의자가 옮겨지고, 그 의자를 옮기는 무용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색감을 더하지 않고 화이트 조명을 사용하였다.

4장에서는 여자 무용수 1이 여자 무용수 2가 앉아있던 의자를 내려놓으면서 장면이 바뀐다. 마지막 장면으로 이 작품에서의 결론이 담겨있다. 무대 위 조명은 흰 배경에 보라색 색감을 사용하여, 보라색이 주는 외로움과 슬픔, 두려움을 해소하고 불안한 마음을 정화하고자 조명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조명의 밝기를 최소한으로 하여 무용수들의 모습이 실루엣으로 보이게 하여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그림자처럼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3.2.4 음악

음악은 무용과 분리 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음악이 주는 정서적 이미지 및 특성이 무용 움직임과 만나 나오는 시너지 효과와 리듬적인 요소는 음악과 움직임 자체에 공유하는 요소이다.

음악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의 특질은 음 길이(duration), 음조(pitch), 음의 세기(intensity), 음색(timbre)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음들은 리듬(rhythm), 템포(tempo), 멜로디(melody), 하모니(harmony)를 지닌 패턴들로 결합되어, 그와 같은 요소들은 각기 특정한 정서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심리적인 반응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²⁶⁾

무용 작품을 창작할 때 음악은 작품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만들고, 전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으며,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였을 때 움직임과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작품의 주제를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기계음과 무음, 쇼팽의 피아노 연주곡, 드뷔시의 피아노

26) 박영애. (2012). 무용요법에서의 음악사용.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1. p.147-158.

연주곡, Brouno Major의 노래까지 총 4곡을 사용하였다.

음악이 주는 분위기와 각 장면 분위기에 맞는 곡을 선택하였고, 장면이 바뀔 때 무용수의 행위 혹은 움직임에 집중될 수 있도록 무음을 사용하여 긴장감과 몰입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1장에서는 기계음과 무음이 반복되는 음악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현세대의 모습을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 소리에 맞춰 걷고, 무음에 멈추는 단순화시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사용하였다. 무음이 주는 긴장감과 몰입감이 돋보일 수 있는 장면으로 의자를 이용한 무용수들의 움직임, 움직임 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이루어진 장면이다.

2장에서는 〈Chopin: Nocturne No.2 In E Major Op.9-2(쇼팽: 야상곡 2번 내림 마장조 작품번호 9-2)〉을 사용하였다. 이 노래가 주는 서정적이고 꿈결같은 멜로디, 편안함을 주는 단순한 리듬, 이 곡에서 반복되는 음형들이 무용수들의 단순한 움직임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곡 선정을 하게 되었다.

3장에서는 〈Debussy: Suite bergmasque, L75-3, Clair de lune〉 곡을 사용하였다. 이 노래는 폴 베를렌의 ‘달빛’이라는 시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곡이다. 달빛 어린 분위기가 묻어난 곡으로, 2장에서의 음악과 같은 피아노 독주곡이다. 2장에서는 서정적이고, 편안함을 주는 리듬이었다면, 3장에서 사용된 드뷔시에 달빛은 차분한 느낌을 준다. 3장에서는 무용수들의 바디 컨택(body contact)으로 이루어진 장면으로, 역동적인 동작에서 나오는 느낌을 노래를 통해 분위기를 차분하게,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관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노래를 정하게 되었다.

4장에서는 〈Bruno Major-Places We Won't Walk〉 곡을 사용하였다. 해석을 하면 ‘우리가 걷지 않을 곳에서’라는 뜻이다. 앞 장에서 사용했던 음악과는 달리 4장에서 음악은 가사가 들어간 노래를 선택하였다. 4장에서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MZ 세대들에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후회하지 않고 사는 내일이 올 거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앞으로의 일은 당장 모르지만,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장면을 연출하고자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노래 가사 중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웃으며 보낼 거예요. 우리가 걷지 않을 곳에서’라는 가사가 나온다. 노래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가사가 마지막 장면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거 같아 선택하게 되었다.

3.2.5 소품



[사진 3-6] 소품 의자 1



[사진 3-7] 소품 의자 2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 3-5] 소품을 사용하였다. 의자의 형태는 높이 500mm, 가로 760mm, 세로 370mm, 화이트 색상 수납형 피아노 의자를 사용하였다.

의자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안정감, 편안함을

주는 이미지를 띄고 있다. 이러한 소품에 특성을 이용해 작품에서 안정적인 삶을 표현하고자 사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의자에 대한 설정을 주제와 융합하여 표현하고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의자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무대 위에서 반고정적으로 사용된다. 1장에서 의자는 무대 하수 다운 스테이지에 고정적으로 놓고, 의자가 놓인 공간을 두고 무대 상, 하수로 나누어 다른 공간으로 분리하기 위해 의자를 사용하였다. 의자가 놓여있는 하수는 안정적인 삶을 의미, 의자가 없는 상수는 자신의 이상적인 삶을 위한 공간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1장에서 의자는 하수에서 이동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는 무용수들이 의자가 놓인 공간에서 움직이며 소품으로 활용된다.

2장에서는 의자가 있는 공간과 공간에서 벗어난 무용수들을 나누기 위해 의자에 위치는 1장에서와 같은 곳에 위치하고, 상, 하수 공간 분리를 하였다.

3장에서는 의자의 위치, 모양이 바뀌면서 무용수들이 직접적으로 의자를 옮기고, 뺏기를 반복하며, 분리되어 있던 공간성이 사라진다.

4장에서는 의자의 위치가 1장에서의 위치로 돌아오고, 의자가 놓인 공간과 없는 공간으로 다시 나뉜다. 의자가 있는 공간에서의 무용수 움직임은 의자 형태를 이용한 변형적인 움직임으로 구성하였고,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는 의자를 표현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서로가 의자가 되어주는 모습과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하여 의자에 대한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IV. 작품 분석

안 무 : 김나연

출 연 : 김나연, 이수빈, 신동윤, 박소정, 차시원

음 악 :

기계음과 무음 반복 제작

Chopin: Nocturne No.2 In E Major Op.9-2(쇼팽: 야상곡 2번 내림 마장조 작품번호 9-2)

Debussy: Suite bergmasque, L75-3, Clair de lune

Bruno Major-Places We Won't Walk

소 품 : 의자

작 품 시 간 : 19분

1. 작품 주제

현재 20대들을 일컫는 MZ 세대는 본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 꿈보다, 안정적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획일화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 획일화된 삶, 본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의 두 갈래에 놓인 MZ 세대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모두가 인정하는 직업과 사람이 되는 것이 유일한 성공한 삶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성공한 삶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길,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의 선택은 앞으로 계속 결정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후회하지 않고 사는 내일이 올 거라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좋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

2. 작품 의도

MZ 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다만 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1995년 사이 출생한 세대, Z세대는 1996~2000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만나 MZ 세대가 왔고, 나는 그 중간에서 두 세대를 마주하고 경험하고 있다.

두 세대는 같은 듯,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던 세대는 지나가고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세대가 온 것이다. 이 중간에서 생활하며, 집단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나는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다 같이 생활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았을 때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채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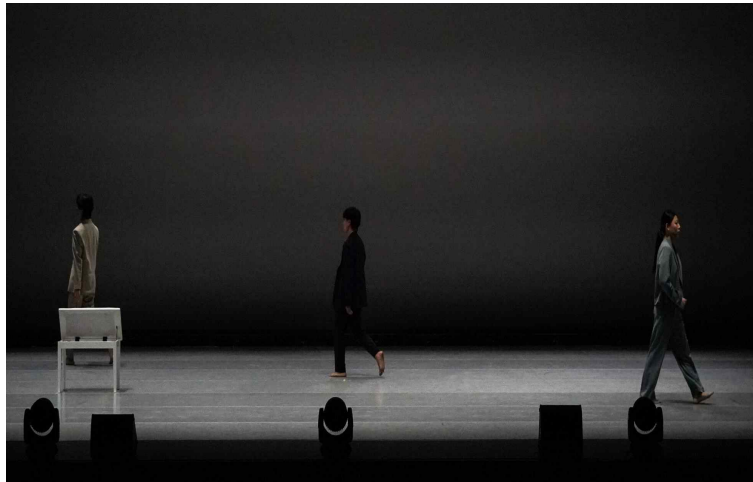
이런 고민과 걱정은 나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고민과 걱정은 계속 있을 거다. 지금 이 순간의 고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민하고, 부딪히며 앞으로의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한다.

4.1 1장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MZ 세대들의 고민, 그 고민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 개개인에 사람들은 고민을 하나씩 가지고, 그 고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어느 순간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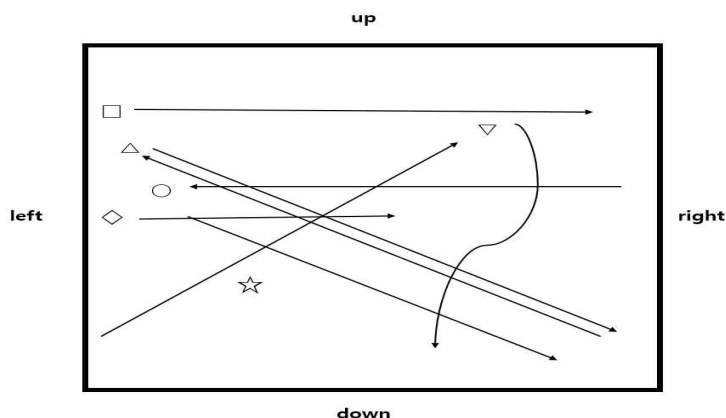


[사진 4-1] 1장(평범한 일상 속 개개인의 모습)

[사진 4-1] 장면은 무용 움직임보다 행위에 초점을 두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인물들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 위를 단순하게 걷고, 멈추고를 반복하였고, 옷을 이용한 제스처, 머리를 쓸어넘기는

작은 제스처를 추가하여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대 위에 의자를 세워둠으로 오브제임을 암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플로어 패턴 기호는 다음과 같다.

◇=여자 무용수1, ○=여자 무용수2, □=남자 무용수3, △=남자 무용수4, ▽=남자 무용수5. ☆=소품(의자)



[그림 4-1] 플로어 패턴



[사진 4-2] 1장

(어느 순간 한 곳에서 만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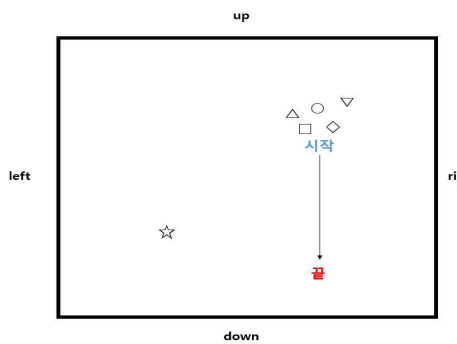
[사진 4-3] 1장

(같은 고민을 바라보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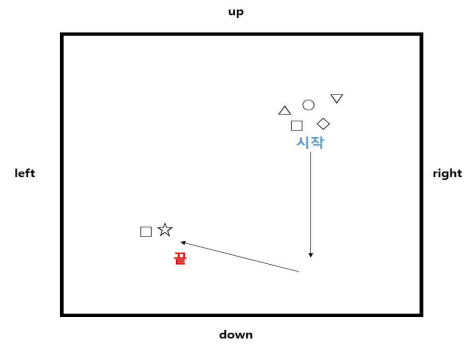
[사진 4-2] 각자의 목표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한 곳에서 만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이 장면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온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무용수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의자 = 안정적인 삶] 가 놓여있다.

[사진 4-3] 한 명씩 의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자에 모여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플로어 패턴 기호는 다음과 같다.

◇=여자 무용수1, ○=여자 무용수2, □=남자 무용수3, △=남자 무용수4, ▽=남자 무용수5. ☆=소품(의자)



[그림 4-2]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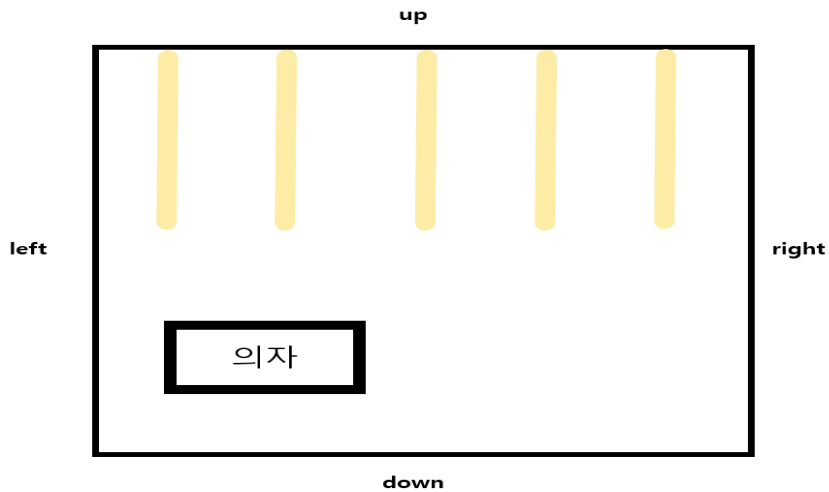
[그림 4-3] 플로어 패턴

4.1.3 음악

기계음과 무음에 반복으로 음악을 제작하였고, 무대 위를 걸어다니는 무용수, 무용수들의 시선과 행위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하게 되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무음으로 바뀌면 멈추는 모습을 관객에게 보여주며 장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4.1.4 무대장치 및 조명

무대의 조명은 음악과 함께 시작한다. 조명은 무대 위 전체 조명으로 백색의 조명을 사용하여, 밝기만 조절하였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다니는 모습, 각자의 길을 걷다 같은 공간에 모이는 우연의 모습을 통해 관객에 집중도를 높이하고자 단순한 조명을 사용하였다.



[그림 4-4] 조명 플랜

4.2 1.5장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각자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다. 안정적인 삶을 바라보며 온 사람들은 의자에 모여 자신의 고민을 생각하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한다.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4-4] 1.5장
(안정적인 삶 속에서의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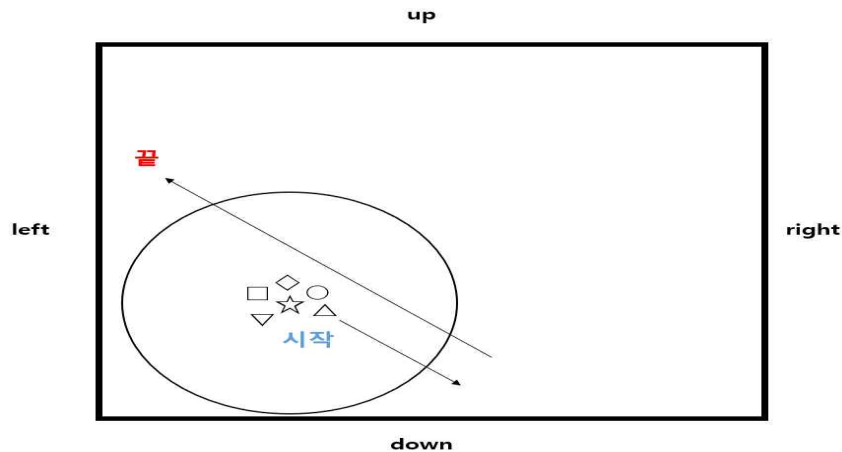


[사진 4-5] 1.5
(고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사진 4-4] 장면에서는 의자가 놓인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초점을 두었다. 1장에서 놓여진 의자를 발견하고 무용수들이 의자 주위에 둘러앉아 자신의 고민을 생각하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시선, 시선에서 확장된 움직임으로 이 장면을 구성하였다.

[사진 4-5] 장면은 고민에서 벗어나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과 아직 고민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 같은 공간에서 고민하던 사람들은 무대를 퇴장하고,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의자를 넘어트리자 남자 무용수 3은 무대 위에 남아있고, 무대 위에 2명의 무용수가 남으면서 2장으로 넘어가는 연결성을 만들었다.

◇=여자 무용수1, ○=여자 무용수2, □=남자 무용수3, △=남자 무용수4, ▽=남자 무용수5. ☆=소품(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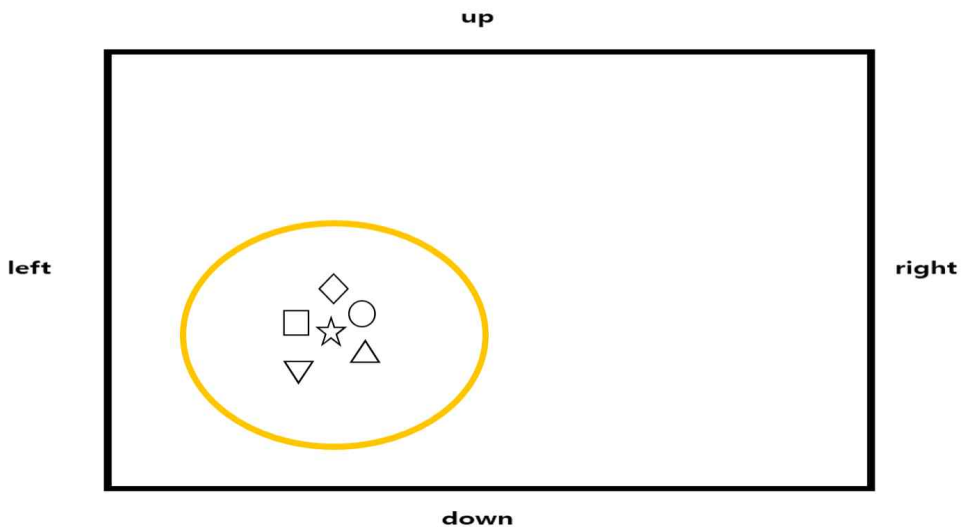
[그림 4-5] 플로어 패턴

4.2.3 음악

의자가 놓인 공간에서의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행위에 집중시키기 위해 4분 동안 무음으로 이 장면을 연출하였다. 의자를 이용한 움직임 속에 나오는 의자 소리, 무용수와의 접촉으로 인한 소리로 음악을 대체 하였다. 무음으로 인해 지루할 수 있는 면을 생각하여 움직임의 속도감에 신경 쓰며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4.2.4 무대장치 및 조명

무대 공간을 의자가 놓인 공간과 없는 공간, 하수, 상수 공간으로 분리하기 위해 의자가 놓인 공간에는 앞 광을 이용한 탑 조명을 사용하였고, 의자가 없는 공간에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 상대성을 강조하였다. 무대 뒤 흰 배경에 무용수들의 그림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하수 쪽 불빛을 강조하였고, 의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숨기고 의자가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6] 조명 플랜

4.3 2장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같은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고민에서 벗어나 각자의 길을 가는 장면으로 의자에 남아있는 무용수와 공간에서 벗어난 무용수와의 공간성을 통해 상대적인 느낌을 만들고자 하였다. 사람들은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결국 제자리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4-6] 2장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들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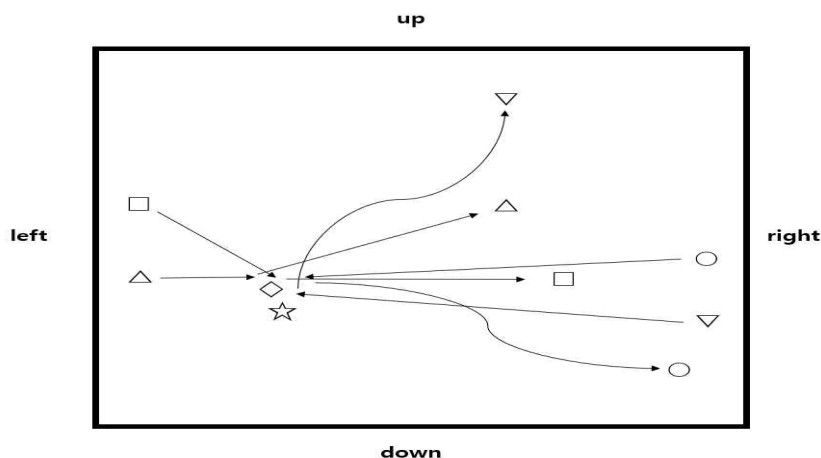
[사진 4-7]

(고민을 해결한 사람과 바라보는 사람)

[사진 4-6] 장면에서는 의자가 놓인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에게 다가와 자신이 고민을 해결했던 방법들을 제시해주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다. 여자 무용수 1에게 모든 무용수가 다가

와 옷을 이용한 컨택, 직접적인 바디 컨택으로 장면을 연출하였고, 여자 무용수 1과 컨택을 진행한 사람들은 상수 쪽으로 이동한다. [사진 4-7] 처럼 상수는 이상적인 삶, 하수는 안정적인 삶과 이상적인 삶에 두 갈래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 무대 공간을 분리하여 표현하였다.

◇=여자 무용수1, ○=여자 무용수2, □=남자 무용수3, △=남자 무용수4, ▽=남자 무용수5. ☆=소품(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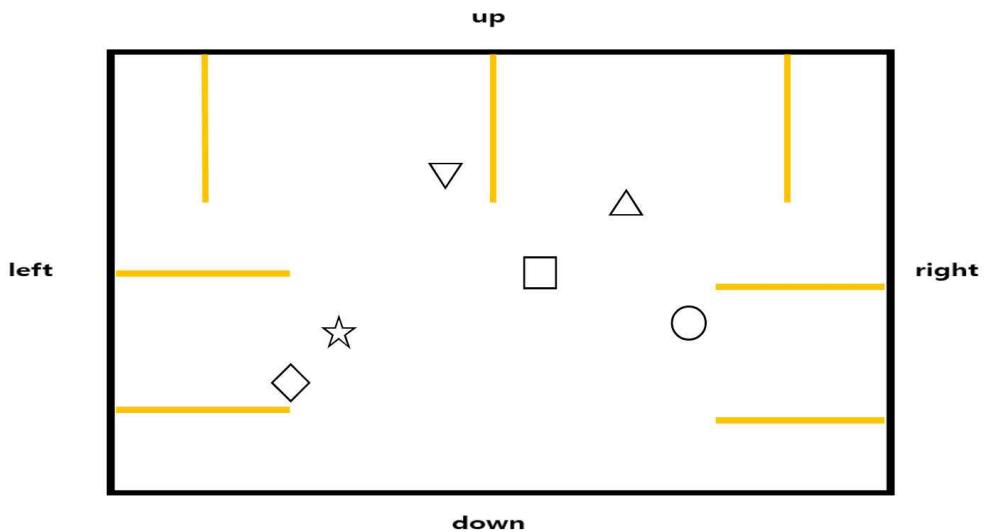
[그림 4-7] 플로어 패턴

4.3.3 음악

무음에서 시작하여 2장으로 넘어가 〈Chopin: Nocturne No.2 In E Major Op.9-2(쇼팽: 야상곡 2번 내림 마장조 작품번호 9-2)〉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 노래가 주는 서정적이고 편안함을 주는 단순한 리듬, 무용수들의 단순한 움직임과 조화롭게 만들어 움직임과 2장에서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다.

4.3.4 무대장치 및 조명

1.5장에서 조명으로 분리했던 공간을 2장에서는 조명이 아닌 무용수들로 공간을 분리하였다. 무대 분위기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으로 연출하며, 사회 속 개개인의 모습을 극대화 시키고자 옐로우 빛 조명을 사용하여 장면의 구성과 의도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그림 4-8] 조명 플랜

4.4 3장

4.4.1 내용 및 안무 의도

혼자 남아 고민하던 여자 무용수 1은 이상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의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무용수들의 의상을 사용하였다. 서로의 옷을 잡아주고, 당기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움직임의 연구를 표현하고자 했다.

3장 후반부에는 고정으로 놓여있던 의자를 옮기면서 서로가 앉고, 뺏고, 반복하는 장면을 만들었다. 이 장면에서는 고민하는 사람,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이미지를 잡고,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4-8] 3장

(고민에서 벗어나고자 시도)



[사진 4-9] 3장

(의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 형성)



[사진 4-10]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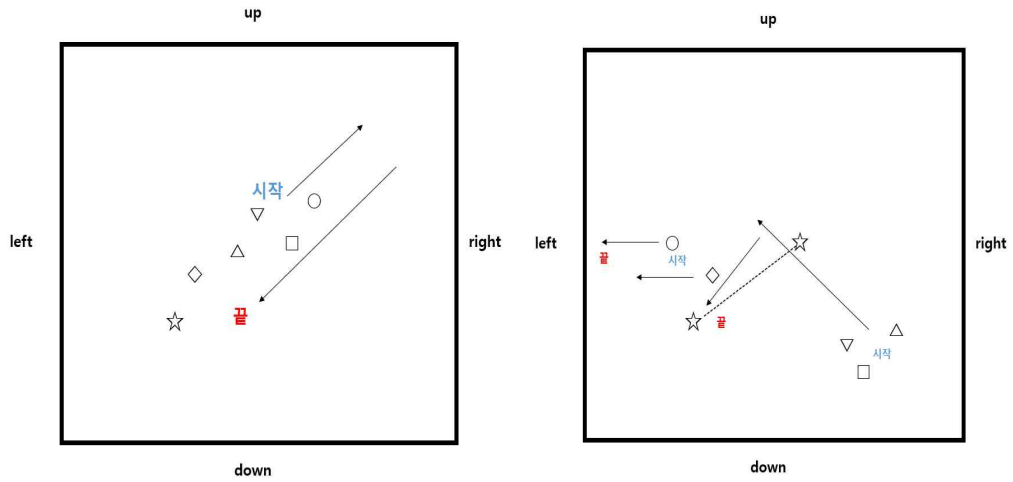
[사진 4-11] 3장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사진 4-8] 장면에서 의자가 놓인 공간에서 벗어나 여자 무용수 1은 4명의 무용수 쪽으로 이동한다. 여자 무용수 1은 남자 무용수 4의 옷을 바르게 입혀주기 위해 옷을 잡지만 거절당하고, 모든 무용수에게 거절당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상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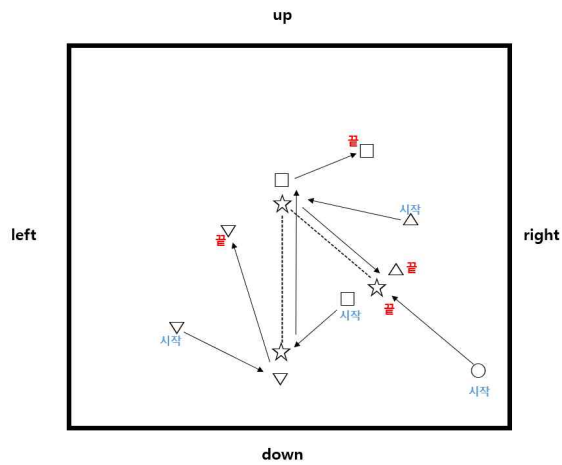
의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안정적인 삶이라면, 옷은 반대되는 새로운 시도, 이상적인 삶에 대한 도전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제 자신의 고민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바디 컨택 (body contact)으로 장면을 구성하였다. 2인무, 3인무 등 다양한 바디 컨택 (body contact)으로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장면이다.

◇=여자 무용수1, ○=여자 무용수2, □=남자 무용수3, △=남자 무용수4, ▽=남자 무용수5. ☆=소품(의자)



[그림 4-9] 플로어 패턴

[그림 4-10] 플로어 패턴



[그림 4-11] 플로어 패턴

4.4.3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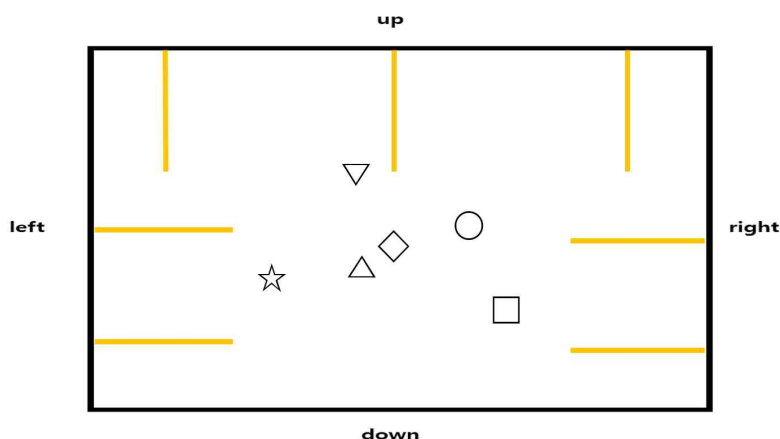
3장에서는 〈Debussy: Suite bergmasque, L75-3, Clair de Lune〉곡을 사용하였다. 2장에서 서정적이고, 편안함을 주는 리듬에 곡을 사용하였다면, 3장에서는 차분하고 무거운 느낌을 전달 할 수 있는 곡을 선택하

였다. 이 곡은 처음에는 차분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리듬의 변화가 생긴다. 3장에서의 움직임이 잔잔하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역동적으로 변화하듯이 음악과 움직임이 맞았을 때 관객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거 같아 선택하게 되었다.

4.4.4 무대장치 및 조명

작품 전체 중 무대 공간 분리가 되지 않는 장면이다.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면으로 연출하기 위해 모든 무대를 사용하고, 고정으로 놓여 있던 의자를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이 장면에서의 조명은 1장에서 진행되는 조명과 동일한 조명으로 밝기만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새로운 관계를 통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백색의 조명을 사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움직임의 질감, 동선 이동을 확실하게 전달 할 수 있을 거 같아 아래와 같은 조명을 사용하였다.



[그림 4-12] 조명 플랜

4.5 4장

4.5.1 내용 및 안무 의도

마지막 장에서는 다시 상수와 하수에 공간이 분리되며 공간에 대한 의미가 재생성된다.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 무용수 1은 의자와 함께 하수, 그 외 무용수들은 상수에서 의자의 형태를 만들며 서로를 얹혀주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만들었다. 고민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다. 상수와 하수가 서로 같은 듯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며 MZ 세대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4.5.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4-12] 4장



[사진 4-13] 4장

(고민을 해결했지만, 또 다른 고민)



[사진 4-14]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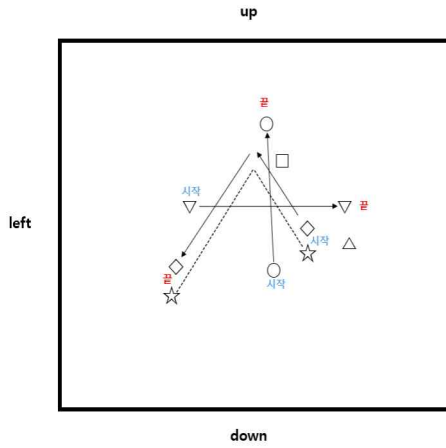


[사진 4-15]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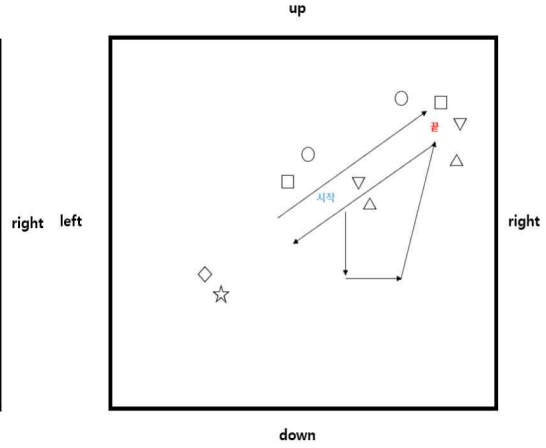
(고민의 선택은 같은 공간에서 머무름)

마지막 장면에서 여자 무용수 1은 의자를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제자리로 오면서 스쳐온 길을 돌아본다. 왔던 길에는 서로가 의자가 되어 주고 있다. 상수와 하수에 공간이 분리되고, 2장에서의 공간성을 4장에서도 띄고 있다. 하수에서는 제자리로 돌아와 고민을 하는 여자 무용수 1, 상수에는 고민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고민에 빠진 모습을 표현하며 두 장면을 실루엣으로 보이게 연출하였다. 특정할 수 없는 인물들로 연출하여 누구나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끝에는 또 다른 고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지금 이 순간의 고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민하고, 부딪히며 앞으로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움직임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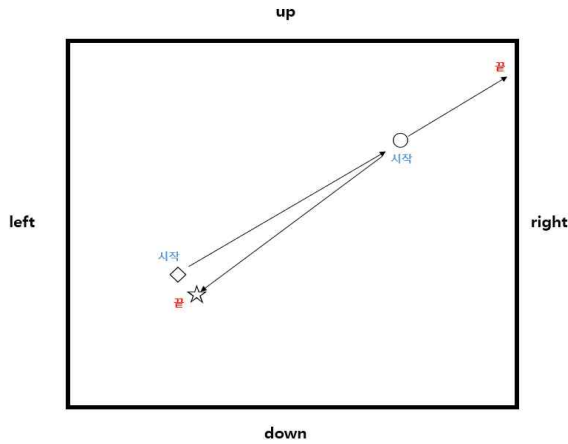
◇=여자 무용수1, ○=여자 무용수2, □=남자 무용수3, △=남자 무용수4, ▽=남자 무용수5. ☆=소품(의자)



[그림 4-13] 플로어 패턴



[그림 4-14]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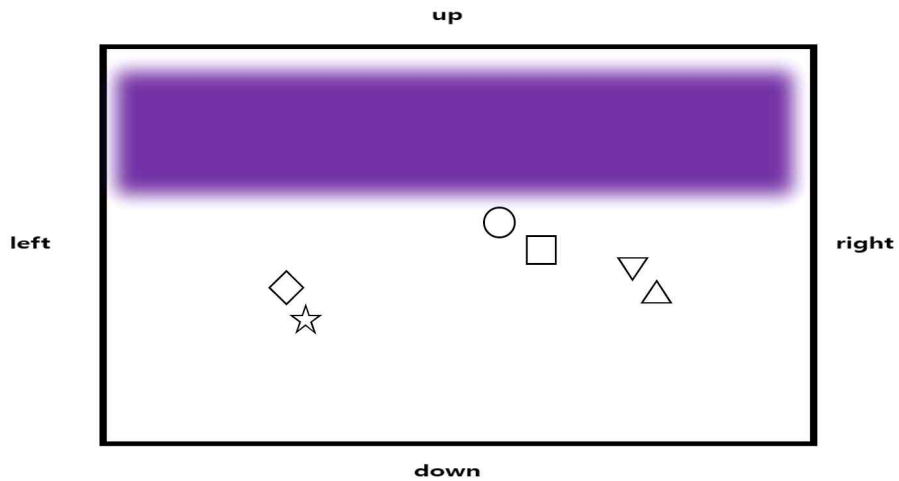
[그림 4-15] 플로어 패턴

4.5.3 음악

4장에서는 〈Bruno Major-Places We Won't Walk〉곡을 사용하였고,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재해석하여 4장을 풀어나갔다. 우리가 걷지 않을 곳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이 곡은 멜로디가 주는 느낌, 주관적이지만 슬픈 느낌을 담고 있는 곡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이 곡이 주는 느낌과 장면이 일치하여 이 곡을 선택하였다.

4.5.4 무대장치 및 조명

마지막 장면 4장에서는 여자 무용수 1이 의자를 원위치로 옮기고, 그 길에 또 다른 의자 형태가 만들어진다. 무대 중앙을 기준으로 상, 하수가 나뉘어 각자 다른 형태의 의자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의자 위에 앉아서 고민하고, 또 다른 의자가 되어주기도 하며 장면을 이어나간다. 이 장면에서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기 위해 조명을 무대 뒤 흰 배경에 보라색의 조명을 사용하여 무대 위 무용수들의 모습이 실루엣처럼 보이게 했다.



[그림 4-16] 조명 플랜

V. 결 론

본 연구자는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MZ 세대의 불확실한 미래 속 안정적인 삶과 이상적인 삶, 두 갈래에 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MZ 세대를 주제로 작품 「 i 」를 무용 예술로 표현하고자 제작,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 과정에 있어 MZ 세대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느끼는 초조함, 불안함을 초점을 맞추었다. 두 갈래에 길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 상, 하수 공간 분리와 소품을 활용하였고, 작품 「 i 」에 본 연구자를 투영시켜 제작하게 되었다.

작품의 주제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주제이다. 본 연구자는 관객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전달하기 위해 안정적인 삶과 이상적인 삶을 키워드로 잡아 표현하였고, 두 개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탐구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폭이 넓어지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회적 가치관 속에 갇혀 자신에 있어 우선 사항이 무엇인지 선택하기 어려워진다.

과거 세대의 문화는 1등, 금메달, 대기업, 결과가 중심이 되는 인정받는 삶이 기준이었다면, MZ 세대는 노력, 소소한 성공과 행복, 과정, 자신이 만족하는 삶이 기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세대의 영향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삶, 안정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MZ 세대는 과거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고자 온전한 나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남들이 볼 때 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세대이다. 그렇다고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세대의 삶이 스스로에게 만족이 된다면 그게 온전한 ‘나’로서의 삶이다.

본 연구자는 이번 작품의 주제를 통해 관객에게 도전과 노력을 통해 사회가 원하는 안정적인 삶의 기준이 아닌 본인이 주체가 되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

작품 제작을 하면서 많은 소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표현하고자 했지만 많은 소품 사용은 연구자 본인의 작품에서 방향성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되어 최소한의 소품을 사용하였다. 소품으로 의자를 사용하고, 무용수의 의상을 다루는 태도에서 시작하여 확장된 움직임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작품의 흐름을 완성 시키고자 했다.

작품에 투영되어 무용수로 입한 연구자 본인은 작품 제작을 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작품의 주제와 연구자가 가진 고민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그것을 깨닫고 작품을 완성해나갔다. 모두가 인정하는 삶이 주는 행복도 분명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에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저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적응한다. 그 삶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만의 이상향을 품고, 현재의 아픔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Marian L. Davis,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 역. (1990). 복식의 시각디자인. 서울:경춘사. 연구자 재구성
- Thomas More. 저, 권혁 옮김. (2011). 유토피아. 돈을새김. p.105-106.
- 고영복. (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 김기연. (2002).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에 따른 생활행동.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p.19.
- 김미예, 옥경영. (2021). MZ 세대의 소비자책임인식, 소비자교육이 지속가능 소비에 미치는 영향 : 기업책임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7. no.3 : p.63-82.
- 김수정, 박해란, 최셋별. (2000). 소비자시민성의 개념화 및 척도개발. 소비자학연구. 31(1). p.279-299.
- 김운중. (2017). 세대별 일자리 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p.12.
- 대학내일02내연구소. (2018).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2019. 위즈덤하우스
- 박영애. (2012). 무용요법에서의 음악사용. 대학무용학과 논문집. 70.1. p.147-158.
- 서병우. (2011).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만족도의 이론연구. 취업진로연구. 1(2). p.69-90.
- 이금화. (2000). 무용공연에서의 조명의 효과 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이수지. (2000). 마케팅을 위한 세대 탐험. KAA저널. p.2.
- 이숙정. (2013).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진로 미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 진로교육연구. 26(1). p.119-139.
- 이진주. (2016). 일상경험을 통한 동양적 이상향의 표현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울, p.7.
- 임철규. (1994). 왜 유토피아인가 : 유토피아, 문학, 이데올로기에 관한 비평. 믿음사. p.11.
- 서신혜. (2010). 조선인의 유토피아-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꿈꾼세계. 문학동네. p.52-54.
- 정재서. (2000). 도쿄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비추는 아나모르포즈. 푸른숲. p.252.
- 홍사현. (2016). 사유공간으로서 ‘이상향(理想郷)’의 상징적 표현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p.14.

〈인터넷 자료〉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00733&cid=43667&categoryId=43667>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2961&cid=42126&categoryId=42126>
- 한국경제신문. 환경 경제용어사전. 한경닷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84621&cid=42107&categoryId=42107>

2. 국외문헌

- Locke, E. A. (1976). Job Satisfaction, In Dunnette, M. D.(Ed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McCormick, E. J. & Tiffin, J. (1974). Industrial psychology(6thed). London: George Allen & Unwin.
- Smith, H. C. (1955). Psychology of Industrial Behavior. New York: McGraw Hill

부 록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i
일 시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7PM
장 소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강당
안무자	김나연
출연진	김나연 이수빈 신동운 박소정 차시원
조명감독	주영석
사진/영상	Hanfilm
주 최	한성대학교

팜플렛





지적 i

작품 내용

현재 20대들을 밀어붙이는 MZ 세대는 본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 꿈 보다, 현실적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확실한 꿈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 확실화된 삶, 본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의 두 가지에 놓인 MZ 세대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모두가 인정하는 직업과 사람이 되는 것이 유일한 성공한 길일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성공한 길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동안의 선택은 앞으로 계속 결정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내게 주어진 시간에 제한을 두려 알아간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후회하지 않고 사는 내일이 올 거라는 희망으로 알아간다. 알아 보아서 알아도 좋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

작품의도

MZ 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다만 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작이가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1995년 사이 출생한 세대, Z세대는 1996~2009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만나 MZ 세대가 되고, 나는 그 중간에서 두 세대를 아우르고 경험하고 있다.

두 세대는 같은 듯,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단을 이루어 생활하던 세대는 지나가고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세대가 온 것이다. 이 중간에서 생활하며, 일단 생활에 익숙하게 있던 나는 혼자만의 힘으로 알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다 같이 생활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았을 때 해결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 두리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고민과 걱정은 나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고민과 걱정은 계속 있을 거다. 지금 이 순간의 고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민하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한다.

무용수



— 이수빈 —



— 신동훈 —

무용수



— 박소정 —



— 차시환 —

지도교수 겸석순

ABSTRACT

Analysis on the Work 「 i 」

Kim, Na Yeon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is a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expression method of a contemporary dance work handling the MZ Generation who is placed at a forked road to a standardized stable life and an uncertain ideal life through the work handling the career concerns of MZ Generation of the present time as its theme.

The MZ Generation composed of the late 10s-late 20s, has increased interest in the quality of personal life due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Contrary to the past generations, the MZ Generation is changing to individual-centeredness, modern times-centeredness, and self-based direction such as various lifestyles and self-satisfactory life. However, it is difficult to live a life that could satisfy the present and the future without any confidence in career. Thus, the MZ Generation that cannot focus on what is important to them, feels difficult to choose their priorities

while being locked up in social values, and feels the uncertainty of the reality and ideal.

In the current society, diverse generations are coexisting besides the MZ Generation. The Baby Boom Generation has a concern about the reality in which no one recognizes their hard work even though they have lived for their family and nation while the 386 Generation born in the 1960s is concerned about building a righteous society.

The X Generation born in the 1970s~1980s is concerned about the social criticism of themselves who express their own freedom and individuality, and only do what they like to do. The Millennial Generation born in 1981~1996 is concerned about the uncertain fut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ed in social life. There is no accurate standard for classifying the Z Generation. According to demographers, the generation born in the mid 1990s~early 2010s is called 'Z Generation'.

Like this, all the generations have different concerns according to the time and situation. The researcher conducted this research by focusing on the concern of MZ Generation in the present time, and also expressed it by projecting the researcher living as the MZ Generation onto the work.

This work composed of total four chapters analyzed the concern about the uncertain future of MZ Generation placed at a forked road, and then expressed the process of solving it. To deliver the concern of MZ Generation, the researcher produced a contemporary dance work 「 i 」 by deciding four settings such as [MZ Generation = the researcher], [Others in MZ Generation = dancers], [Clothes = ideal life], and [Chair = stable life].

In order to effectively deliver the theme of this work, this study aimed to complete the flow of work by using clothes, chair, and

dancers except for the researcher. First, to express the stable life by utilizing a chair, the relationship between chair and dancer was established by separating the stage space. To express the movement in the expanded space after getting out of the space called chair, the ideal life was expressed by utilizing clothes.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work by dividing the meanings of props metaphorically expressing the theme of work, movements, and composition of stage space.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this study aimed to express the current concern of MZ Generation through the contemporary dance creative work 「 i 」 by researching and expressing the props, image of movement, and method of movement.

【Keywords】 Generation, MZ Generation, Reality, Ideal, Concerns, Career